

詩와 思想의 辨證法

—鄭 芝 溶 論—

朴 哲 石

1

지용은 한국 新詩史 이후 전통을 변화시킨 중요한 시인이다. 그는 현대시의 방법의식에 맹목했던 시기에 새로운 리듬과 감각혁명을 통하여, 우리말의 영역과 詩語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뛰어난 匠人的 솜씨를 지닌 시인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1930년대 초기, 모더니즘운동에 앞장선 金起林은 「鄭芝溶論」에서, 첫째 <우리의 詩속에 「現代의 呼吸과 脈搏」을 불어넣은 最初의 詩人>이며, 둘째 <우리말의 各個의 單語가 가지고 있는 두계와 感觸과 光과 陰과 形과 音에 대하여 것처럼 的確한 識別을 가지고 驅使하는 詩人>이며, 셋째 <日常 對話의 語法을 그대로 詩에 이끌어 넣어서 生氣있고 自然스러운 內的 「리듬」을 創造>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¹⁾

이와 같이 우리말의 음영의 빛깔과 리듬을 현대시의 試金石임을 보여준 시인이 乙酉解放 이후 그의 값진 업적을 저버리고 이데올로기시인으로 몸바꿈했다는 것은 「시인 鄭芝溶」으로서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작품 세계를 開陳하기에 앞서 그의 탁월한 업적을 無化시켜 놓고 이데올로기시인으로 몸바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한 이미지스트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가 자못 관심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 金起林 : 詩論, 白楊堂. 1947, pp. 83~85.

내가 무엇이고 精誠껏 몇마디 써야만 할 義務를 가졌건만 붓을 잡기가 죽기
모담 싫은날 나는 친의를 뒤집어 쓰고 차라리 病아닌 呻吟을 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써야하나!

才操도 蕩盡하고 勇氣도 傷失하고 8.15 以後에 나는 不當하게도 숨어간다.²⁾

日帝時代에 내가 詩나 散文이니 죄그만치 썼다면 그것은 내가 最少限度의
朝鮮人을 維持하기 爲하였던 것 以外の 아무 것도 아니었다.

解放德에 이제는 最大限度로 朝鮮人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것이겠는데 어떻게
8.15 以前같이 倭少龜縮한 文學을 固執할 수 있는 것이랴?

自然과 人事에 興味가 없는 사람이 文學에 干與하여 본 적이 없다. 오늘 날
朝鮮文學에 있어서 自然은 國土로 人事는 人民으로 規定된 것이다. 國土와 人
民에 興味가 없는 文學을 純粹하다고 하는 것이냐.

남들이 나를 부끄러워 純粹詩人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스스로 純粹詩人이
라고 意識하고 表明한 적이 없다.³⁾

위에 인용한 두 글 중, 앞것은 「尹東柱詩集序文」의 일부이고, 뒤것은
「散文」이란 제목아래 써어진 글의 일부이다.

그런데 앞글에서 느끼는 바는 지용의 서글픈 두 개의 얼굴이다. 앞글은
시를 못쓰는 답답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으나, 뒤글은 탈(persona)
을 쓴 당당한 그의 표정이다. 앞글은 美學이 훼손된 자리에 代價物로서 이
데올로기를 대치시켜 보려는 그의 결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백로가 까마
귀로 변한다는 것은 예술적 자살 행위임을 총명한 지용이 몰랐을 까닭이 없
다.

2

지용의 詩는 1925년 「學潮」지에 「카페 프랑스」, 1927년 「文藝時代」지에
「산에 색시 들에 사내」, 동년 「朝鮮之光」지에 「갈매기」 「甲板위」 등이 발표
된 데서 비롯된다.

계속해서 지용은 朴龍喆과 같이 정교한 言語美를 창조하는 「詩文學」에 참

2) 鄭芝容: 散文, 「尹東柱詩集序」, 同志社, 1949, p.248,

3) 前掲書, pp.30~31.

가했고, 1934년 전후하여 「카톨릭靑年」지의 주동인물이 되어 이미지즘詩를 구축하는데 그의 탁월성을 과시했다.

지용의 초기시는 「鄭芝溶詩集」跋文에서 朴龍喆이 지적한 대로 <눈물을 구슬같이 알고 지어라도 내리는 듯하던 時流에 거슬러서 많은 눈물을 가버이 진실로 가버이 휘파람 불며 비누방울을 날리던 때> 씌어진 것들이다.

이와 같이 그의 초기시는 感傷의 반역에서 <白金빛> 같은 맑고 단단한 것을 찾아 사물의 彫鑿性에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지용의 연금술은 <안으로 熱하고 걸으므로 서늘음기>⁴⁾ 한 신선하고 단단한 감각과 언어를 절제있게 표현하는데 있었다.

그의 감각의 빼어남과 대상의 정확한 조소성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바다 2」를 들 수 있다.

바다는 빨갛이
달어 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에 같이
제재받았다.

꼬리가 이부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珊瑚보다 밝고 슬픈 생체기!

가까스루 물아다 부치고
뱀죽을 돌려 손질하여 물기를 지쳤다.

이 엘은 海圖에
손을 짓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물물 굴르도록

4) 鄭芝溶: 文學讀本, 「詩의 威儀」, 博文書館, 1949, p.196.

회동그런히 바쳐 풀었다!
地球는 蓮잎인양 움으라들고…… 퍼고…….

「바다 2」 전문

琉璃에 차고 슬픈것이 어린거린다.
얼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코 지우고 보아도
새까단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더치고,
물먹은 벌이, 반짝, 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후로 琉璃를 닮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십사이어니,
고혼 肺血管이 찢어진 채르
아아, 너는 山새처럼 날려 갔구나!

「琉璃窓 1」 전문

지용의 첫시집 「鄭芝溶詩集」에는 바다를 노래한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와 비슷한 사정은 기림과 임화도 마찬가지지만, 김과 임의 경우, 先驗的 觀念을 넘어서지 못한 매우 서투른 솜씨를 보여준 데 비해, 지용은 직관을 통한 사물의 명징성과 신선한 감각을 전달하고 있다.

「바다 2」에서 보인 〈푸른 도마뱀〉 〈흰 발톱에 찢긴／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地球는 蓮잎인양 오므라들고… 퍼고〉 등의 감각적 비유는 지용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새로움이다. 더구나 〈뽕뽕이〉 〈가까스루〉 〈찰찰〉〈물뚝〉의 음성상징을 통해 우리말의 감촉의 날카로움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면적인 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다의 경쾌하고 신선한 생동감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2행을 독립된 연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시형태의 새로움도 곁들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송옥씨는 「視覺的 印象의 斷片」⁵⁾ 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서 바다의 인상을 공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용의 가작 「琉璃窓 1」에서 언어의 절제와 감각의 깨끗함은 더욱 뚜렷해진다. 감성의 직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天才的

5) 宋鑷：詩學評傳，「韓國모더니즘批判」，一潮閣，1963，p.196，

敏感)⁶⁾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는 그가 강조하는 〈안으로 熱하고 겉으로 서늘습기〉를 입증한 좋은 보기이다.

3

「鄭芝溶詩集」에는 바다를 직접 노래하였거나, 바다와 관련을 맺고 있는 작품이 10여 편을 차지하고 있다.

지용이 이처럼 바다에 관심을 모았다는 것은 시인이 몸담은 자리가 식민지라는 특수한 여건과 깊은 맥락이 이어진다. 당대의 김기림과 임화 등의 바다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시켜 볼 때, 그의 바다는 폐쇄된 현실과 대척되는 자리에 밝고 건강한 무한대의 바다의 이미지가 놓여진다.

砲彈으로 뚫은듯 동그란 船窓으로
눈설까지 부풀어 오른 水平이 엿보고,

하늘이 함쪽 내려 앉어
큰악한 암탕처럼 끓고 있다.

透明한 魚族이 行列하는 位置에
훗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여!

망토 깃에 솟은 귀는 소랏속 같이
소란한 無人島의 角笛을 불고—

海峽午前二時の 孤獨은 오롯한 圓光을 쓰다.
설어울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자.

나의 青春은 나의 祖國!
다음날 港口의 개인 날새여!

航海는 정히 戀愛처럼 沸騰하고
이제 이드매쭈 한밤의 太陽이 떠오른다.

「海峽」진문

6) 金起林：詩論, 「모더니즘의 歷史的 位置」, p.76.

위의 작품 역시 바다가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바다의 얼굴은 소재를 넘어선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바다이다. 따라서 시인의 굳센 의지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이 함목나려 앉어 / 큰악한 압답처럼 품고 있다> <海峽午前2時の 孤獨은 오뚝한 圓光을 쓰다> 등은 기교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내면에 감추어진 시인의 감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의 후미 <나의 靑春은 나의 祖國!> <다음날 港口的 개인 날세여!>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다음 연에 이어지는 <이제 어드메쯤 한밤의 太陽이 피어 오른다>와 연결시켜 볼 때, 단순한 감각적 재치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상황의 어둠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단면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지용이 보여준 현실감각은 1920년대 많은 시인들이 즐기던 도피나, 탐미의 나약한 의지와는 달리 朴龍喆이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눈물을 구슬같이 알고 지어라도 내리는 듯한 時流에 거슬러서 많은 눈물을 가뉘이 휘파람불며 비누방울>을 날려 보내는 밝고 건강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밤비는 뱀은 처럼 가는데
 케이브멘프에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랑스에 가자.

이 늙은 머리는 빗두룬 능금
 또 한늬의 心臟은 털러 떡은 薔薇
 제비 처럼 젖은 늬이 뛰어 간다.

(중략)

鬱金香 아가씨는 이밤에도
 更紗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요!

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피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大理石 테이블에 닿는 내뺨이 슬프구나!

오오, 異國種강아지야
 내말을 팔다다오.

내발을 빨아다오.

[카베 프랑스]에서

沈鬱하게 울려 오는
 築港의 汽笛소리…… 汽笛소리……
 異國情調로 버터이는
 稅關의 旗사발, 旗사발.

새멘트 간 人道側으로 사뭇 사뭇 움기는
 라이안 洋裝의 點景!

그는 흘러가는 失心한 風景이여니……
 부출없이 오랑쥬 꺾길 접는 시를……

아아, 愛施利·黃!
 그대는 上海로 가는구로!…….

[슬픈 印象畫]에서

여기서는 어느덧 시인은 <戀愛처럼 沸騰>하던 밝은 감정보다 <웨이프먼트
 에 흐느끼는 불빛>과 <失心한 風景>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와 같이 밝음보다 슬프고 어두운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시인 자신
 이 <나라도 집도> 없는 流浪人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해서 지
 용은 李箱처럼 어둔 골방에서 썩어가는 심장을 내버려 둘 수도 없었으며,
 永郎처럼 모란이라는 類似宗教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
 내 지용은 巡禮의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詩人是 窮極에서 言語文字가 그다지 내수롭지 않다. 詩는 言語의 構成이기
 보다 더 精神的인 것의 熱烈한 情況 혹은 旺盛한 狀態 혹은 恍惚한 士氣임으
 로 詩人是 恒常 精神的인 것에서 精神的인 것을 照準한다. 言語와 宗匠은 精
 神的인 것까지의 一步 뒤에서 細心할 뿐이다. 表現의 技術的인 것은 차라리
 詩人의 타고난 才幹 혹은 平生 熟練한 腕法의 不和中の 所得이다. 詩人是 精
 神的인 것에 神的의 狂人처럼 一生을 두고 가없이도 熱烈하였다……

精神的인 것은 만만하지 않게 豊富하다. 自然, 人事, 사랑, 죽음 乃至, 戰
 爭, 改革, 더욱이 德義的인 것에 명이 든 肉體를 詩人是 차라리 平生 지녀야
 하는 것이 精神的인 것의 가장 優位에는 學問, 教養, 趣味 그러한 것보다도
 「愛」와 「祈禱」와 「感謝」가 據한다. 그러므로 信仰이야말로 詩人의 日用할 神

的 樞道가 아닐 수 없다.⁷⁾

여기서는 종교시인 정지용의 엄숙한 얼굴을 보게 된다. 그가 내세운 <精神的인 것>은 <信仰>과 맞먹는 말이 되며, <信仰>은 <詩人の 日用할 神的 精道>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그가 <精神的인 것> 곧 신앙에 관심을 모았다는 것은, 첫째 감각이 소모된 자리에 대처물로 여겨지며, 둘째 이러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리라.

4

지용의 두 권의 시집 「鄭芝溶詩集」 「白鹿潭」에서 신앙에의 관심은 그의 바다에 대한 관심과 거의 맞먹고 있다.

그의 신앙심과 관련이 있는 작품으로는 「鄭芝溶詩集」에 수록된 「不死鳥」를 위시해서, 「나무」 「恩惠」 「별」 「臨終」 「갈릴레야바다」 「그의 반」 「다른 한울」 「또 다른 太陽」 「램프」 등의 10편과 「白鹿潭」에 수록된 「슬픈 偶像」 1편 도합 11편이다. 지용의 종교시로 알려진 가작 「不死鳥」와 「또 하나 다른 太陽」을 들어본다.

悲哀! 너는 모양할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산었도다.

너는 비현 화살, 날지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진히노라.

너를 둘러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幸福」이 너를 아조 싫여하더라.

너는 꺾것 나의 心臟을 차지하였더뇨?
悲哀! 오오 나의 新婦! 너를 위하여 나의 窓과 옷숨을 달었노라.

이제 나의 青春이 다한 어느날 너는 죽었노라.

7) 鄭芝溶: 文學讀本, 「詩의 擁護」, pp. 208~209.

그러나 너를 묻는 아무 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퍼는
오오 悲哀! 너의 不死鳥 나의 눈물이어!

「不死鳥」전문

은 고을이 받들만 할
薔薇 한 가지가 솟아난다 하기로
그래도 나는 고향 아니하련다.

나는 나의 나히와 별과 바람에도 疲勞하다.

이제 太陽을 금시 일어 버린다 하기로
그래도 그리 놀라울리 없다.

실상 나는 또하나 다른 太陽으로
살았다.

사랑을 위하여 입맞도 일는다.
외로운 사슴처럼 병어려 되어 山길에
슬지라도—

오오, 나의 幸福은 나의 聖母마리아!

「또 하나 다른 太陽」전문

작품 「不死鳥」는 지용의 종교시 가운데 매우 무거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韓國 近代詩史에서 인간 실존의 고뇌를 이처럼 깊이 있게 다뤄진 시는 없다. 「不死鳥」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다.

그러나 시인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보여 주지 않으며, 다만 죽음은 <나의 가장 안에서> <박힌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이벡저의 말에 의하면, 죽음은 근원적으로 存在論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인간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용은 그러한 辨證法的 論理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太陽」은 「不死鳥」보다 정신적 여유를 보여 주고 있다. 「또 하나 다른 太陽」의 경우는 초월자와 시인과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영혼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시와 관념이 분열되어 있어 「不死鳥」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인은 <오오, 나의 幸福은 나의 聖母마리아!>라고 감격어린 표정을 짓고 있으나, 초월자와 시인과의 만남 이전의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용의 종교시는 진지한 신앙자 체험에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빚어진 감각적 분위기를만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림종하는 밤은
귀도려 하나도 울지 말라.

나종 죄를 들으신 神父는
거룩한 座婆처럼 나의 靈魂을 갈르시라.

聖母就潔禮 미사때 쓰다남은 黃蠟燭!

담머리에 숙인 해바라기꽃과 함께
다른 세상의 太陽을 사모하며 늘으라.

永遠한 나그네길 路資로 오시는
聖主 에수의 쓰신 圓光!
나의 영혼에 七色의 무지개를 심으시라.

「臨終」에서

위의 작품에서 지용은 종교시에서까지 감각의 난카로움을 과시하고 있다. 몇 귀절을 옮겨 보면 <聖母就潔禮 미사때 쓰고 남은 黃蠟燭!> <聖主 에수의 쓰신 圓光> <七色 무지개> 등은 시인의 육성이자기보다 감각적 황홀에 그치고 있다.

「臨終」은 경험세계의 외안에 있는 초월자와의 만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예외없이 초월자와 인간의 실존적 자각에서 오는 갈등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그는 죽을까지도 감각적 대상으로 파악하려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그의 종교시는 <하나의 스타일>⁸⁾에 머물고

8) 金允植: 韓國近代作家論攷, 「모더니즘의 限界」, 一志社, 1974, p. 119.

있는 것이라 믿어진다.

—죽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한 錯覺이다— 그러나 「죽음」이란 벌서부터 나의 聽覺안에서 자라는 한 恒久한 黑點이 된다. 그리고 나의 反省의 正確한 位置에서 내려다 보면 램프 그늘에 채곡 집혀 있는 나의 肉體가 목이 말려하며 祈禱라는 것이 반듯이 精神的인 것보다도 어떤 때는 純粹히 味覺의인수도 있어서 쓰레 쓰고도 달디 단 이상한 입맛을 다십니다.

「램프」에서

여기서는 신앙을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祈禱라는 것이 반드시 精神的인 것 보다는 어떤 때는 純粹히 味覺的인수도〉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어떤때〉란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나 신앙을 마치 감각의 범위로 해석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지용의 종교시는 초월자와의 만남을 쉽사리 감각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실존적 자각이 없는 한갓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지용의 종교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멀리 J·단이나 엘리트의 경우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종교(카톨릭)라는 전통이 허약한 데서 출발했다는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

5

두 번째 시집 「白鹿潭」은 산문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가장 精神이나 肉體로 疲弊한 때)⁹⁾ 쓰여진 것이라 발뻘하고 있으나, 이미 그의 〈天才的 敏感〉이 바닥이 난 것이다. 따라서 지용은 〈天才的 敏感〉이 소모된 자리에 〈朝鮮의 自然風土와 朝鮮人的 情緒 感情〉¹⁰⁾을 옮겨 놓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이 무렵 시집 「白鹿潭」을 위해서 「鴨川上流」 「內金剛素描」 「多島海記」 「畫文行脚」 등 상당수의 紀行隨筆을 발표하고 있다.

朝鮮초갓집 지붕이 역시 정다운 것이 알아진다. 한테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앞담 양지리처럼 다스운 것이 아닐까, 滿州별은 五里나 十里에

9) 前掲書, p. 85.

10) 前掲書, p. 86.

喪與집같은 것이 하나 있거나 말거나 하지 않았던가, 山도 조선山이 곱다, 눈이랑 발두족도 흙빛이 노르끼하니 첫째 다사로운 맛이 돈다, 추위도 끝닿은데 와서 다시 情이 드는 朝鮮추위다. 顔面血管이 바작바작 바스러질 듯한데도 하늘빛이 하도 고와 흰 옷고름 길게 날리며 펄펄 걷고 싶다.

「齋文行脚(四)」에서

絶頂에 가까울수록 俳句재 꽃기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부 우에서 목아저가 없고 나중에는 언팔만 가웃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威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俳句재 기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俳句재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읊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중략)

白樺 옆에서 白樺가 鬮體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白樺처럼 흰것이 충 없지 않다.

(중략)

가재도 되지 않는 白鹿潭 부른 물에 하늘이 돈다. 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젖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할 조근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니라.

「白鹿潭」에서

꽤 인용이 길어졌다. 앞엿것 「齋文行脚(四)」은 기행문이고, 뒤엿것 「白鹿潭」은 그의 산문시이다. 이미 시와 산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시 정신은 해이되어 있다. 이러한 시적 변모(散文化)는 그가 마지막 기대인 방법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白樺 옆에서 白樺가 鬮體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서 白樺처럼 흰것이 충 없지 않다>고 매우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원래 관조란 주관과 객관, 개별성과 보편성을 통일·조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美意識이다. 시집「白鹿潭」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은 초기시에서 보여준 다이내믹한 톤은 거의 사라지고, 매상을 파악하려는 美意識은 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을 靜態的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서구적인 모더니즘을 청산하고 동양적인 고전의 질서, 老莊의 無爲自然의 세계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老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을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땅이 굽으시고 숲이 차신데도 그대로 꽃을 가꾸시는 양을 봐오니 손수 콩드리신 가지에 밝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뭇이나 주름살이 도로히 꽃
 답소이다……奔放히 짧은 情炎이 식고 豪華롭고도 왓왓한 부끄럼과 거칠수 없
 는 괴움으로 纏놓은 青春의 웃웃을 벗은 뒤에 오는 淸秀하고 孤高하고 幽閑하
 고 頑強하기 鶴과 같은 老人의 德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음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를 老境에서 일인가 합니다.

「老人과 꽃」에서

작품 「白鹿潭」에 비해 자못 설명적이다. 시정신과 산문정신을 구별 못할
 만큼 그의 정서와 감각은 무디어졌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白樺의
 감각은 후퇴되고 〈鶴과 같은 老人의 德〉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시
 가 관념화의 경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그에게 한 편의 시보다 선비 지용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6

해방후 지용은 시를 못 쓴 대신 산문에 많이 손을 대고 있다. 더구나 시
 와는 인연이 먼 잡문(時事短評)에 더 많이 손을 뻗히고 있다.

오늘날 朝鮮文學에 있어서 自然은 國土로 人事는 人民으로 規定된 것이다.

國土와 人民에 興味가 없는 文學을 純粹하다고 하는 것이냐?

남들이 나를 부르기를 純粹詩人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스스로 純粹詩人이
 라고 意識하고 表明한 적이 없다. ……시와 文學에 生活이 있고 勤勞가 있고
 批判이 있고 鬭爭과 摘發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옳은 藝術이다.¹¹⁾

해방후 그의 행적을 알기에 알맞는 글이다. 〈淸秀하고 孤高하고 幽閑하고
 頑強하기 鶴과 같은 老人의 德〉이 다름 아닌 선비의 기질로 믿었던 지용이
 어느듯 현실에 대응하는 행동파의 黨의 시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언젠가는
 〈信仰이야말로 詩人의 日用할 神的 糧道〉라고 자못 종교시인임을 자부한 바
 있었던 그가 여기서는 시와 생활에 〈勤勞〉와 〈批判〉과 〈鬭爭〉과 〈摘發〉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 〈사철 지지귀는 가

11) 前掲書, 「散文」, p.31~32.

마귀, 참새를 위하여 憤然히 편을 드는 大衆詩人¹²⁾으로 타락한 것일까.

지용이 해방과 더불어 이토록 무서운 까마귀로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달새나 피꼬리가 우는 나날보다 울지 않는 달이 많다고 한 장본인 정지용이 아닌가. 마침내 그의 조급성이 자신을 ㅁ파멸의 길로 이끌었으리라.

켓적 아래 옳은 道理
三十六年 피와 눈물
나종까지 견뎌거니
자유 이제 바로 왔네.

東奔西馳 革命同志
密林속의 百戰義兵
獨立軍의 銃부리로
世界彈丸 쫓았노라.

왕이 없이 살았건만
正義만을 모시었고
信義로서 盟邦 얻어
犧牲으로 이거었네.

敵이 바로 降伏하니
石器 적의 어린 神話
漁村으로 도라가고
東과 西는 이제 兄弟

원수 에츠 밧지 말고
남의 손짓 미리 막아
우리끼리 굳셀뿐가
남의 恩惠 잊지 마세.

진흙 속에 묻혔다가
한울에도 없어진 별
눈이 솟아 나레 땀뚝
우리 나라 살아 났네

12) 鄭芝溶: 文學讀本, 「詩와 發表」, p. 199.

萬國사람 우리보아
누가 일러 적다 하리
뚜렷하기 그지 없어
은 누리가 한눈일네.

「愛國의 노래」¹³⁾전문

백성과 나라가
夷狹에 팔리우고
國廟에 邪神이
傲然히 앉은지
죽음보다 어두운
嗚呼 三十六年!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燦爛히 돌아오시니!

허울 벗기우고
외오 돌아섰던
山하! 이제 바로 돌아지라
자취 잃었던들
옛 자리로 새소리 흔리어라.

이제 하늘이 아니어니
새론 해가 오르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燦爛히 돌아오시니

말이랑 문회우고
국식 앗어가고
이바지 하울 가음마자 없어
錦衣는 커니와
戰塵 떨리지 않은
戎衣 그대로 피일밖에!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燦爛히 돌아오시니

사오나온 발꿈에

13) 大潮 創刊號：1946.1, 大潮社。第一卷第一號

열가 친척 흐터지고
 늙으신 어버이 어린 오누이
 낫서라 흙에 이뼌없이 굴으신 白骨!

상과 불현듯 기다니는 마을마다
 그네 어이 꽃을 밟고오시라
 가시덤불 눈물로 해치시라!

그대를 돌아오시니
 더 혼란신 보란 燦爛히 돌아오시니!!

「그대를 돌아오시니」¹⁴⁾ 전문

해방후 <天才的 敏感>을 포기하고 쓴 이른바 애국시다.

지용은 벌써 시와 노래(창가)를 구별 못하는 눈먼 시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匠人 지용은 사라지고 이태올로기의 당당한 목소리만이 남아 있다. 애국이란 탈을 쓴 또 하나의 지용을 보게 된다.

피괴리, 종달새는 노상 우는 것이 아니고 우는 나팔보다 울지 않는 탈수가 더 낫다……

詩가 詩로서 온전히 제자리가 돌아 빠지는 것은 차라리 꽃이 봉우리를 머금듯 피괴리 목청이 제철에 트이듯 아기가 열달을 채서 胎盤을 돌아 誕生하도록 하는 것이니 詩를 또한가져 다른 自然現象으로 물리는 것은 詩人の 迴避도 아니고, 無責任한 罪로 다스릴法도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詩的 機密에 參加하야 그 堂奧에 들어서기 전에 無用한 多作이란 徒勞에 그칠뿐이요…… 오직 藝術文化에 純粹와 永久를 照準하기 위하여 詩는 절로 孤高한 자리를 차지 않을수 없는 必然性에 執着한뿐이다.¹⁵⁾

지용이 시를 못쓴다고 가없이 여기어 두는 사람은 人情이 고운 사람이라 이런 親舊와는 줄이 생기면 조용 조용히 안주 삼아 울 수가 있다……

傑作이라는 것을 몇해를 두고 計劃하는 作家가 있다면 그것도 「不滅」에 대한 어리석은 虛榮心이다. 어떻게 해야만 「좋은 藝術」을 急速度로 製作하여 建國鬭爭에 이까지 하느냐가 切實한 問題다.¹⁶⁾

14) 날개 : 朝鮮青年文學家協會 慶南本部, 1946. 8.

15) 鄭芝溶 : 前掲書, 「詩와 發表」, pp. 199~201.

16) 前掲書 : 「散文」, pp. 28~32.

위의 두 글을 대조하여 읽은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그는 두 개의 입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전자가 후자보다 먼저 발표된 것이라 짐작된다. 전자는 한편의 시가 완성될 때까지 장구한 시일을 두고 참을성이 있어야한다고 지용다운 말을 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옳은 藝術을 急速度로 製作하여>란 앞뒤가 엇갈리는 말을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탈을 쓴 지용의 꼭예임을 알아차릴 수 있거니와, 그러나 옳은 예술이 <急速度로 製作>된다는 공허한 논리 앞에 더 할말이 없다. 그러나 언어의 연금사였던 지용이고보매 이런 언어의 유희가 거짓임을 자신만은 알고 있었으리라.